

## 사드 한파에도 네이멍구서 열린 한중 사막화방지 전시회



국가기관뉴스통신사 | 기사입력 2017-09-07 10:00



(서울=연합뉴스)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양국 작가들이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에서 사막화 방지 전시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미래숲은 중화청년연합회,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공동 주최로 7일 네이멍구 어월더씨 국제컨벤션에서 '지구 살리기 그린 코어' 전시회를 개막했다.

한국 측은 고예정·김남표·김명우 등 12명, 중국 측은 푸리·부리 구더 등 17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세계 각지에서도 11명의 작가가 초대됐다.

김승민 큐레이터가 기획한 이 전시회에는 12개의 스크린을 통해 회화·사진·카툰·캐리커처 등 82점과 환경 관련 기관의 사막화 방지 활동을 담은 7개의 영상이 17일까지 선보인다.

모니크 바부 유엔씨씨디 사무총장은 개막식에서 "미래숲과 UNCCD가 손을 잡고 사막에 나무를 심는 노력을 10년 넘게 지속하고 있어 놀랍다"면서 "작년 유엔 본부 전시에 이어 미래숲이 나무를 심어온 네이멍구 이 곳에서 전시를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2017.9.7 [전시기획사 이스카이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최신 유행 트렌드 총집결(클릭!)